

■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이 시급하다

- 지식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

- (개념) 지식 근로자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금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종업원이라고 정의됨
- (유형) 지니고 있는 '지식'의 특성에 따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지식을 지닌 '특화형',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'응용형', 발명가나 디자이너 등 혁신적 지식을 지닌 '창조형'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

- 우리나라의 지식 근로자 현황

- (전체 현황) 총 취업자 가운데 지식 근로자 비중은 18.7%(98년)에 그쳐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
- 이의 연평균 증가율은 5.2%(93~98년)에 달해 선진국의 2%대에 비해 크게 높으나 싱가포르의 10.1%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짐. 이는 국내 지식 근로자의 성장 잠재력이 선진국보다는 높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낮음을 의미함
- (유형별 현황) 97년의 경우 응용형 지식 근로자가 전체 상용 근로자의 10.9%에 달하였으나 창조형은 6.2%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창조형이 전체 근로자의 15.2%에 달하는 반면 응용형은 4.0%에 그친 미국(96년)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, 우리나라의 경우에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줌
- (산업별 현황) 금융·보험·부동산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업, 건설업에서의 지식 근로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
- 그러나 경제의 소프트화와 함께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, 보건, 문화 등의 업종을 포괄하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 지식 근로자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여 이 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
- (실업위험도 분석) 98년의 경우 지식 근로자의 실업률은 5.2%에 그쳐 다른 근로자의 7.2%에 비해 2.0%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그러나 지식 근로자 가운데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

- 지식 근로자 육성 방향

- (정부 정책의 방향) 정부 차원에서는 ‘신지식인’처럼 개인적 특성을 지닌 특화형 지식 근로자보다,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응용형 및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 방안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
- (유형별 정책 방안)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조형 지식 근로자는 교육 개혁 및 전문경영자 교육 체계 정비와 같은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함
- 상대적으로 풍부한 응용형 지식 근로자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업 중개 기능 활성화와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

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이 시급하다

□ 문제 제기

- (지식 근로자 시대의 도래)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근로자의 생존 및 발전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
 - 21세기 지식경제에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의 가치가 높아짐
 - 반면 지식 활용에서 뒤떨어지는 근로자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짐
- (지식 근로자 개념의 혼란) 지식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함에 따라 개념 불일치에 따른 혼란이 유발되고 있음
 - 연구직이나 전문직 등 지식의 활용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개념에서부터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지식 활용도를 높이면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'신지식인' 개념까지 혼재되어 있음
 - 이러한 개념의 불일치에 따라 지식 근로자 논의에 있어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 근로자 육성 방안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
- (개념 정립 및 현황 분석 시도) 본고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지식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후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함
 - 특히 지식 근로자의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와 더불어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급증 속에서 지식 근로자의 실업 위험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
 - 이를 바탕으로 지식 근로자 육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볼 것임

□ 지식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¹⁾

- (개념) 지식 근로자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금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종업원이라고 정의됨
 -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근로자, 자신의 머리를

1) 이 부분의 논의는 주로 Rick Dove, "The Knowledge Worker", *Automotive Manufacturing Production*, Cincinnati, Jun. 1998.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임

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근로자, 자신의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는 근로자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이용되고 있음

- 그런데 지식 근로자 구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'지식'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할 수 있음
- 결국 지식 근로자란 '상품' 생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, 혹은 상품 생산의 새로운 방법을 아는 근로자인 것임

- (유형) 지식 근로자는 지니고 있는 '지식'의 특성에 따라 크게 '특화형', '응용형', '창조형'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

- **특화형**: 특정 회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등과 같이 적용 범위는 좁지만 효용은 아주 높은 지식을 지닌 지식 근로자
- 이는 최근 자주 논의되는 '신지식인'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,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자기 업무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특화형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음
- **응용형**: 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특정 설비나 기계를 다루거나 개발할 수 있는 지식 혹은 기능을 지닌 지식 근로자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나 기계기술자 등이 대표적인 예임
- 즉 응용형 지식 근로자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, 활용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비용 절감 혹은 수익 증대를 통해 부가가치 증대(경쟁력 제고)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근로자임
- **창조형**: 상품 개발이나 디자인 등 혁신에 기반을 둔 지식을 지닌 지식 근로자로, 경영자, 사업 전략가, 발명가 등이 이 부류에 속함
- 창조형 지식 근로자는 혁신을 통해 기업 가치나 경쟁력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근로자인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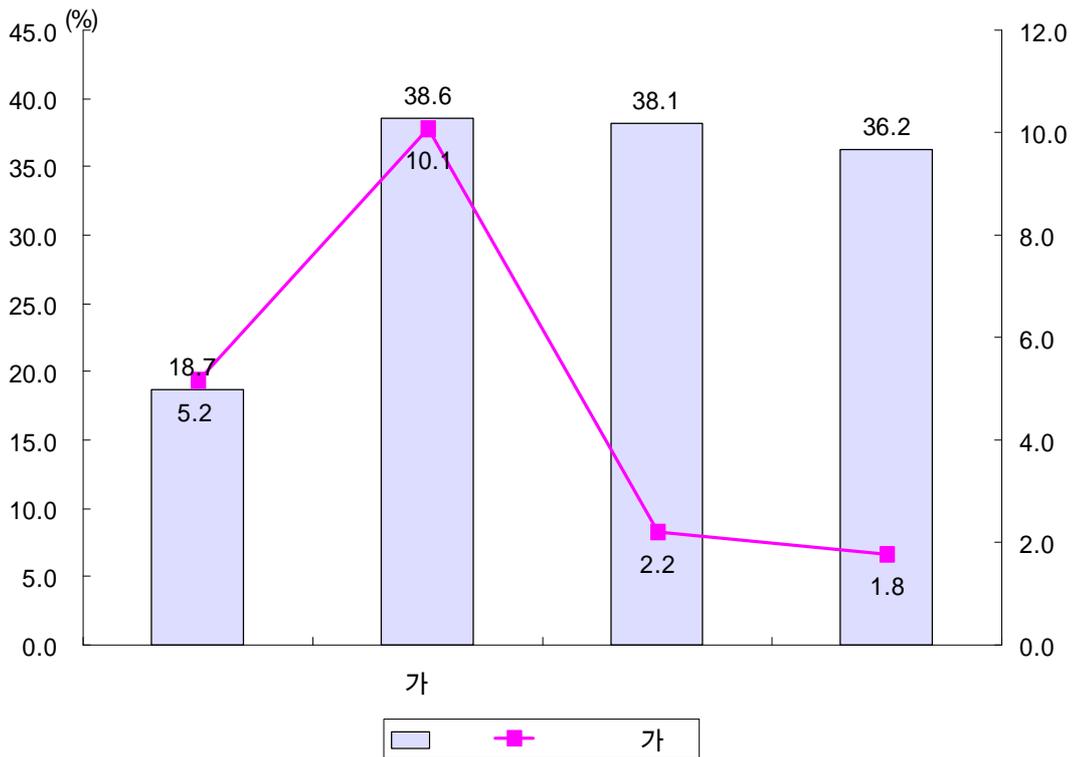
□ 우리나라 지식 근로자의 현황

- (전체 현황)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중 지식 근로자²⁾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그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음³⁾

2) 여기서의 지식 근로자는 특화형을 제외한 응용형 및 창조형 지식 근로자만을 의미함. 모든 근로자가 특화형 지식 근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국제비교는 의의가 없고 현황 분석도 불가능함

- 우리나라의 지식 근로자 비중은 18.7%(98년)에 불과해 독일(38.1%, 96년)이나 영국(36.2%, 96년)은 물론 싱가포르(38.6%, 96년)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함
- 이는 결국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식 기반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
-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5.2%(93~98년)에 달해 독일의 2.2%(93~96년)나 영국의 1.8%(94~96년)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
- 그러나 싱가포르의 지식 근로자 증가율은 10.1%(93~96년)에 달하여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음
- 즉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 기반 확대의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,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음

< 지식 근로자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국제비교 >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연보」, 1998. ILO, *Yearbook of Labor Statistics*, 1997.에서 계산

- 3) 직종 대분류(ISCO-88) 중 1~3 항목에 해당하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, 전문가, 기술공 및 준 전문가에 해당하는 취업자를 지식 근로자로 파악하였음. 이 경우 실제 지식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들도 상당수 포괄될 가능성이 높으나, 상대적으로 고도의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부문이므로 지식 근로자의 대체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됨

- (산업별 현황)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·보험·부동산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업, 건설업에서의 지식 근로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
 - 우리나라의 산업별 지식 근로자 비중의 변화(94~98년)를 살펴보면, 금융·보험·부동산업과 광업이 4.3%p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짐
 - 또한 제조업(3.8%p 증가), 전기·가스업(3.5%p 증가), 건설업(3.3%p 증가) 등의 산업에서도 지식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음
 - 반면 도·소매 및 음식·숙박업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,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, 농림어업 등의 산업에서는 지식 근로자 비중이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
 -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경제의 소프트화와 더불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종에서의 지식 근로자 증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판단됨

< 산업별 지식 근로자 비중 추이 >

	전산업 (%)	농림어업	광업	제조업	전기 가스	건설업	도소매 음식 숙박	운수 창고 통신업	금융 보험 부동산	사회 및 개인 서비스
1994	15.5	0.5	10.0	14.7	21.1	12.0	6.6	8.9	30.2	49.2
1998	18.7	0.4	14.3	10.9	24.6	15.3	8.8	8.8	34.5	50.0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연보」, 1994., 1998.에서 계산

주: 직종대분류 1~3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식 근로자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므로 지식 근로자 비중의 단순 비교는 산업별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큰 의미가 없음

- (실업위험도 분석) 지식 근로자의 실업 위험도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가 없는 실업대란을 겪고 있음
 - 그런데 지식 근로자와 비지식 근로자의 1998년 실업률을 통해 실업위험도를 비교해 보면 지식 근로자의 실업률이 5.2%인 반면 비지식 근로자는 이보다 2%p 높은 7.2%를 기록하여 비지식 근로자의 실업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, 지식 근로자 중에서도 전문가는 실업률이 3.0%

에 머물러 실업대란 속에서도 거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(실업률 5.5%)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(실업률 6.2%)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 위험도를 기록하였음

- 한편, 비지식 근로자 가운데에서는 생산직에 해당하는 기능원(실업률 11.5%), 기계조작원(실업률 7.3%), 단순노무직 근로자(실업률 10.3%)의 실업위험도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

< 1998년 직종별 및 지식 근로자 여부별 실업률 >

	실업자(천명)	취업자(천명)	실업률
전체	1,461	19,994	6.8
입법공무원,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	30	511	5.5
전문가	34	1,103	3.0
기술공 및 준전문가	139	2,121	6.2
사무직원	165	2,418	6.4
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	333	4,736	6.6
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	24	2,364	1.0
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	329	2,540	11.5
장치,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	165	2,093	7.3
단순노무직 근로자	242	2,108	10.3
지식 근로자	203	3,735	5.2
비지식 근로자	1,258	16,259	7.2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연보」, 1998.에서 계산

- (유형별 현황4) 우리나라의 경우(97년) 응용형 지식 근로자가 10인 이상 전체 상용 근로자의 10.9%에 달한 반면 창조형의 비중은 6.2%에 그침
 - 또한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서도 응용형이 매년 10.1%씩 증가한 데 비해 창조형은 4.2% 증가에 그치고 있음

4) 지식 근로자 유형 구분은 상용근로자의 직종 중분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'물리 수학 및 공학 전문가'와 '자연과학 및 공학 기술공'을 응용형으로 파악하였고, '법인관리자', '종합관리자', '생명과학 및 보건 전문가', '생명과학 및 보건 준전문가'를 창조형으로 분류함

- 반면 미국의 경우(96년) 응용형 지식 근로자는 4.0%에 불과하나 경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창조형 근로자가 15.2%에 달해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
- 즉 유형별로 파악할 경우 우리나라는 여러 부문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응용형 지식 근로자가 많아 지식 기반 확대에 유리한 편이나, 새로운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창조형 지식 근로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

< 지식 근로자의 유형별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>

		지식 근로자 유형	
		응용형	창조형
한국	비중(% , 97년)	10.9	6.2
	연평균 증가율(% , 93~97년)	10.1	4.2
미국	비중(% , 96년)	4.0	15.2

자료: 노동부, 「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」, 1993., 1997.

George T. Silvestri, "Occupational employment projections to 2006", *Monthly Labor Review*, November 1997에서 계산

- 주: 1) 원칙적으로 응용형에는 공학 전문가 및 기술공이 주로 해당될 것이나 위의 수치에는 물리 및 수학 전문가와 자연과학 기술공이 포함되어 있어 응용형의 비중이 다소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- 2) 미국의 경우에도 최대한 우리나라에 대해 적용한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 자료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비중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

□ 시사점: 지식 근로자의 육성 방향

- (정부 정책의 방향) 특화형 지식 근로자보다 정부가 주로 담당하여야 하는 응용형 및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
 - 현재 정부의 지식 근로자 육성 방안은 소위 '신지식인'에 해당하는 특화형 지식 근로자 육성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
 - 물론 경제 전반에 걸친 지식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화형 지식 근로자 육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정부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기업 및 개별 근로자가 노력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됨
 - 따라서 정부는 특화형 지식 근로자보다 교육 개혁 등 사회 인프라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응용형이나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

- (유형별 정책 방안)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조형 지식 근로자는 육성 방안에, 상대적으로 풍부한 응용형 지식 근로자는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함
 -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용형 지식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지식 기반 확대에 유리한 조건이므로 이들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 지식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는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, 운수·창고 통신업 등의 부문에서 응용형 지식 근로자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 - 한편,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창조형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됨
 - 미국의 급속한 성장이 이러한 창조형 지식 근로자가 풍부한 데서 이루어졌다는 논의도 존재하는 만큼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성에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임
 - 창조형 근로자 육성을 위해서는 창의력 개발 위주로의 교육 개혁이 필수적이며,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족한 전문경영인⁵⁾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자 교육 체계 정비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

- (개별 근로자의 대응 방향) 지식 근로자의 실업위험도가 낮은 만큼 개별 근로자로서는 앞으로 실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식 근로자화되어야 함
 - 아직 지식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식 근로자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
 - 특히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명확한 현재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가 실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식 근로자가 되는 것임
 - 위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특화형 지식 근로자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'전문가 직종'에 필적하는 지식을 지닌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실업률이 낮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함
 -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은 지식 근로자의 유형 가운데 자신의 현재 입장에서 가장 되기 쉬운 유형을 선택하여 지식 근로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
■ 홍성민 연구위원 hsamu@hri.co.kr ☎724-4034

5) 미국의 경우 경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.2%(96년)나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.6%(97년)에 불과한 실정임